

"월드 엔진(차세대 중형 가솔린 엔진) 소개"

박 성 현

현대기아자동차 연구개발본부 파워트레인연구소장, 부사장

요 약 : 자동차 산업은 높은 연관 산업 효과와 국산화율로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전체 산업의 10%에 달하는 직간접 고용 효과로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높은 분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산업 분야가 자동차 산업이기도 하다. 현재 전 세계 5개국만이 자국 메이커를 보유하는 현실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최근 선진 자동차 업체들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연비 향상, 실운전 영역에서의 강력한 성능 구현, Maintenance Free화를 위한 내구 신뢰성 확보, 조용하며 정숙한 운전을 위한 소음과 진동의 최소화 및 전세계적으로 강화된 배기 가스 규제를 만족하는 환경 친화적인 차세대 가솔린 엔진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가솔린 엔진 개발 동향 속에서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2.0L, 2.4L급 차세대 중형 가솔린 엔진 개발에 착수하였고 4년여에 걸친 노력 끝에 성공적으로 개발을 완료하였다. 또한 선진 자동차 업체의 중형차에 탑재된 엔진들과 비교하여 우수한 제품 경쟁력을 갖추어 다임러크라이슬러 및 미쓰비시사에 기술 사용료를 받아, 엔진 설계/개발 기술을 이관함에 따라 제품(Hardware) 수출에서 기술(Software) 수출로의 전환 및 국내 최초 엔진 설계/개발 기술 이전 기반을 구축하여 당사 기술력과 브랜드 인지도의 세계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남기게 되었다.

차세대 중형 가솔린 엔진인 세타 엔진은 2004년 9월 신형 쏘나타 차량에 탑재되어 양산이 시작되었고 향후 현대, 기아 자동차의 타 차종으로의 탑재 및 다임러크라이슬러와 미쓰비시사의 새로운 차종에 탑재되어 그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다.